

강진, 올가을 강진만에서 자연·축제 맘껏 즐기자

무안군, 제5회 무안마을장 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장에는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을 배경으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 공간과 사진 촬영 공간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드넓은 갈대밭을 거닐며 갈대가 바람에 춤추는 모습과 해질 무렵 강진만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축제장 곳곳에는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자연 속에서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축제장으로 꾸밀 예정이다.

아이들과 가족이 강진만의 자연을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강진만 생태탐험대'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탐험대원이 되어 갈대밭과 습지, 갯벌 등을 살펴보고 큰고니와 짙둥어 등 강진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과 생태환경을 알아본다.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배우고, 축제장 내 분리배출과 친환경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태체험관과 생태홍보관에서는 강진만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만나볼 수 있다. 가상체험 시설과 실내 탐조 공간도 마련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강진만의 생태환경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화합 프로그램도 준비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린이 키즈존과 어린이 공연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즐길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남해안 최고·최대 생태축제를 맘껏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운재 기자



강진 갈대축제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목포시, 2026년 시정자문회 정기회의 개최



목포시정자문회 위원들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2일, 2026년 시정자문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을 공유하며 시정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성휘 시장과 시정자문위원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 사업 설명과 제안·토론을 진행했다. 시정자문회는 목포시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7년 이내인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풍부한 행정 경험

과 전문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획복지 등 3개 분과, 30명 내외로 구성돼 시정에 대한 건의와 자문, 지역 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정자문회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고향사랑기부 제복공무원 헌신 감사 이벤트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해양·소방·교정직 등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함평군은 6일 "함평군 고향사랑기부 제복공무원 헌신 감사 이벤트"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오는 23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군인(간부 공무원)·경찰·해양·소방·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함평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과 동반 가족 1인에게 2026 대

한민국 국향대전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인까지 추가로 무료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을 희망하는 제복공무원은 기간 내 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뒤 행사 기간 중 축제장 대표소에서 고향사랑기부 내역과 공무원증 등 제복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 청년 공직자들 국회서 정책 실행 고민 나눴다

영암군 청년 공직자들이 국회를 찾아 공직자의 자세와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나눴다.

영암군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는 지난 9월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과 혁신소통 간담회를 갖고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청년 공직자들이 국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현장을 살펴보고, 국가정책이 지역행정과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서삼석 의원은 공직을 우선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넓은 시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을 바라볼 때 넓은 시야를 갖고 창

의적인 사고와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가길 당부했다.

서 의원은 정책의 방향이 맞다면 현장 여건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 달라고 조언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아동양육수당 신설...최대 월 70만원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6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신안군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아이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신안군 아동양육수당은 정부 아동수당(월 30만원)에 군비 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월 70만 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성태 기자

